

분단의 장벽을 깨고 하나가 된 나라

독 일 (3)



배 순 덕
화가 · 호는창량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하자 베를린 시가지가 점차 희미해진다. 한때의 안개가 우-하니 몰려 와 그나마 희미하던 시가지를 모두 덮어 버렸다. 안개와 같은 나라 독일.

역사 속에 수 없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노련하게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들의 국민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에 연루된 다섯명의 암살범을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범들을 재판없이 처형한 장소인 ‘정치범 처형소’ 건물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담장 밖에는 초록의 나무가 싱그럽게 우거져 있는데 바로 한치앞 담장 안의 건물에는 단순한 정방형의 상자처럼 만들어진 방에 핏자국과 같은 벽의 얼룩과 그 당시 고문을 했던 도구들과 정치범들을 처형하기 위해 끌어 내었을 작은 쪽문 등이 으스스한 느낌을 갖게 했다.

그러한 건물 앞쪽에, 이차대전 당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탑이 서 있는 것과, 마당 한쪽에 연회색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항아리에 전국 각지 유대인들이 처형되었던 장소에서 한줌씩 모아온 흙이 담겨져 있는 건 이러한 역사에 대한 속죄의 뜻인가?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들어서는 입구에서 보았던 허리가 구부러진 커다란 고목이다. 거기에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나 차나 드나들기가 무척 불편해 보였다. 그런데도 굳이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란덴부르크 성문. 동서 베를린 장벽에서 동베를린쪽에 서 있는 이 성문은 1734년 프레드릭 1세 때에 축조된 것으로 높이가 26m이며 문 위의 여신이 들고 있는 독수리상은 프레센군을 상징한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거침없이 앗아갔었는데, 오늘을 살고있는 그 후손들은 하찮은 나무 한그루를 지키기 위하여 문의 위치를 변경하고도 여전히 그 나무로 인하여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를 내기 위해서라면 나무 뿐만 아니라 산까지도 아낌없이 싹둑 잘라 버리는 우리네 현실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부란덴부르크 문과 승전기념탑을 관람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갔다. 자유대학은 이차대전 당시 미군들의 점령지였던 관계로. 다행히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다.

그래서 숲도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다.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속에 드문드문 아담한 주택들이 서 있고 큰 나무 사이사이로 심은지 몇년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나무가 튼튼한 철책의 보호를 받으며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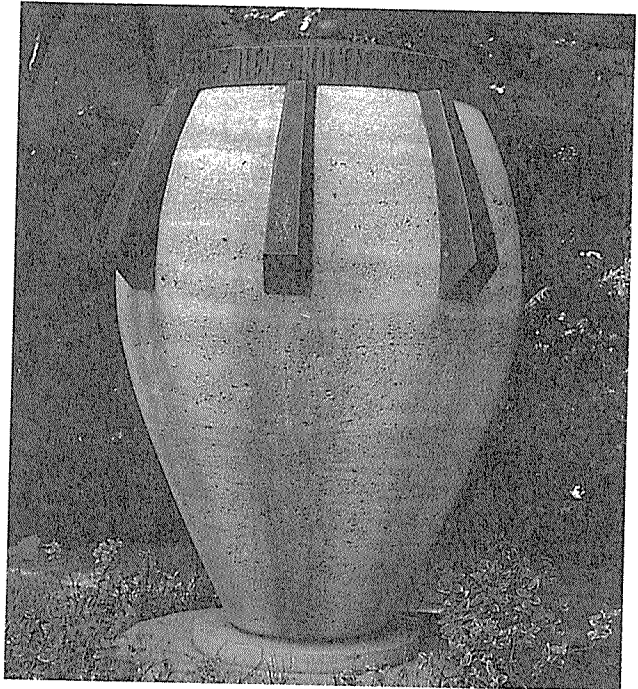
나무 하나에까지 기울인 세심한 배려가 그들의 미래를 짐작하게 했다. 자유대학 캠퍼스에 있는 숲속의 집들은 원래 일반인들의 주거지였는데 대학측이 그 집들을 사들여 연구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교수나 교직원들의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숲 사이로 곧게 이어진 폭이 좁은 아스팔트길은 모두 자전거용 도로이고, 학생들은 그 안의 잔디밭을 이용한 야외 강의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

드디어 독일을 떠나는 날 아침이다.

6시 30분에 아침식사를 마치고 출발시

정치범 처형소 마당에 ▶
 놓여 있는 항아리.
 전국 각지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었던
 장소에서 한줌씩 모아 온
 흙을 담아 봉인해 놓았다.



간인 8시까지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 남은 시간동안 호텔 근처의 호수를 돌아보려 했으나, 프린트와 1층 로비에 여러가지 그림이 많이 걸려 있어 그것을 감상하느라 하마터면 차 시간조차 놓칠 뻔했다. 조금히 버스에 올라 이층 창가에 앉으니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긴다. 차는 헤겔공항으로 달렸다.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푸른 빛의 주말농장들이 안개 속에 뿌연게 스쳐 지나간다.

베를린서 변두리 쪽으로 각종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주말농장은 모두 시 소유의 땅이다. 베를린 시민들은 시로부터 균등하게 불하받은 그 땅에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각종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자연의 내음을 마음껏 즐긴다.

또 자기 몫의 땅에 대해서는 개인끼리 서로 사고 팔 수는 있으나 소유권 자체가 옮겨 가는 건 아니고 소유권은 영구히 시가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시당국은 더 많은 시민들이 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자투리 땅도 일정하게 분할하여 시민들이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안개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그 안개 속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나타나는 베를린 시가지의 모습이 마치 독일의 역사를 연상하게 했다. 통일된 독일의 아침은 그렇게 꿈속처럼 고요히 깨어나고 있었다. 지나치게 명랑하지도 지나치게 침울하지도 않게. ☒